

이제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 감초재배

박 춘 근

농촌진흥청 약용작물과

한약재재에 널리 사용되는 감초 재배기술

우리나라의 감초재배 유래는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다. 「감초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아니하여 세종조에 중국에서 구해 상림원(上林園)에 심게 하였다가 마침내 여러 도에 나누어 심게 하다.」는 기록이 있다. 근래에는 1970년대에 이태리 시실리에서 유럽감초(*G. glabra*)로 추정되는 감초를 수입하여 씨뿌리(중근)를 고가로 판매하였으나 번식기술이 부족하여 널리 보급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이용하고 있는 감초의 90% 이상은 수입에 의존하며 연간 3천톤 이상이 한약재와 식품의 원료로 수입되고 있으며, 주수입국은 중국이다. 중국의 감초생산은 야생채취와 재배생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야생자원 남획으로 자생지 면적과 품질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인공재배를 하고 있다.

감초는 대한약전규정에 유럽감초(*Glycyrrhiza glabra* Linne), 만주감초(*Glycyrrhiza uralensis* Fische)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약재 중에서 수요량이 가장 많으며, 각종 한약재재에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감초재배기술을 소개하고자 한다.

감초가 잘 자라는 재배환경

감초는 내한성이 강하므로 남부지역에서부터

중북부 산간지까지 넓은 지역에서 재배할 수 있다. 토양은 건조하고 토심이 깊으며 지하수위가 낮은 사질양토에서 재배된 감초는 글리시리진(*Glycyrrhizin*) 함량이 높고, 단맛이 강하며 섬유가 적고 분질이 많다.

토심이 50cm이며 사토 또는 사양토에서 재배해야 원뿌리(주근) 비대가 촉진되어 상품성이 높은 감초를 수확할 수 있다.

감초의 효율적인 재배법

직파재배도 가능하나 파종량과 포장관리 효율을 고려할 때 묘상에서 1년간 기른 모종을 이식재배 하는 것이 좋다. 육묘포 종자는 4월 하순~5월 상순에 파종한다. 너무 일찍 파종하면 모잘록병 발병률이 높다. 햇별이 잘 들고 배수가 잘 되는 밭에 높이 30cm 이상으로 묘상을 만든 다음 줄 사이 8cm, 포기사이 8cm로 하여 4~5알의 종자를 점뿌린 후 1cm 정도 흙을 덮고 가볍게 눌러준다. 발아 후에는 풀을 뽑아 관리하며, 이듬해 봄에 본밭에 아주심기 할 수 있다.

감초모종을 심는 시기는 4월 중순이 좋다. 심는 거리는 줄 사이 45cm, 포기사이 30cm로 심으며, 모종의 길이가 20cm 이상으로 길어 수직으로 심기가 어려우므로 15°로 빳겨 심기를 한다.

모종이 땅속에 완전히 묻히게 하는 방법과 모종 머리 부분이 지표면으로 0.5cm 정도 나오게 심는 방법이 있다. 모종을 완전히 땅속에 들어

가게 했을 경우에는 머리 부분에서 포복경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 뿌리수량은 증가한다.

수확과 생산성을 높이는 수확 후 관리

수확은 모종을 심은 후 1~2년에 수확할 수 있으며, 뿌리의 발육상태 및 가격을 고려하여 연장 재배할 수도 있다. 수확 시기는 늦은 가을에 줄기가 마른 후 수확해야 단맛이 강하며 약효성분이 높아진다. 수확한 감초 뿌리는 오염되지 않은 물로 세척하고, 열풍건조기에서 30~60℃로 6~12시간 건조한 후 자르고 다시 10~18시간 건조한다.

감초는 수분함량이 12% 이하가 되도록 완전 건조시키고 10℃ 이하의 온도에서 저장한다. 저장 중에 방습을 완전하게 하려면 자주 햇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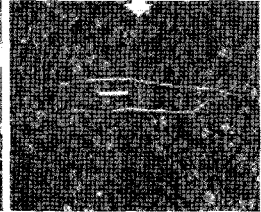
짜거나 화력을 이용하여 다시 건조한다. ㉟

〈농촌진흥청 농업녹색기술 10월호〉

◆ 감초재배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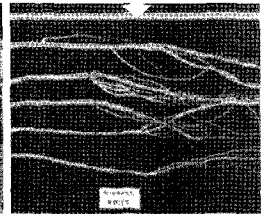
▲ 감초종자



▲ 1년생 모종



▲ 생육 중기포장



▲ 옮겨 심은 후 1년생 뿌리

보리호위축병과 흰가루병에 강한 맥주보리 신품종 '백호'

김 미 정 기초조정과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국내산 맥주보리의 품질 향상

국내 맥주보리의 수요량은 약 31만 톤이나 국내산 맥주보리 재배면적은 19.4천ha(2008)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른 국내산 맥주보리의 자급률도 감소하여 24%(2007)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는 기상변화에 따른 맥주보리 생산량 감소와 바이오에너지용

으로의 작물재배 전환, 개발도상국 등의 경제성장으로 세계적으로도 맥주보리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산 맥주보리는 품질이 낮아 재배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친환경 등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와 지역 특산 맥주 브랜드 개발, 저알콜 주류의 선호도 증가와 함께 국내산 맥주보리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